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인생들을 사랑하사 목숨자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도 진리의 길을 따라 가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로마서 1장 2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2호 2011년 9월 2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무늬만 크리스천...그대로 둘 수 없다!

바나리서치, 새 옷 입은 신앙 변화 경험할 수 있는 대안 제시

9.11 테러 발생 1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에게는 성찰과 자성의 시간이 주어졌다. 즉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미국 시민으로 해야 할 의무들과 권리들은 무엇인지...

교회공동체들 역시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9.11 테러라는 참담한 비극 앞에서 크리스천다운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천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따르는 권리들과 의무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기독교관련전문가 바나(G. Barna)는 한마디로, 아직까지 미국 교회에는 명목상의 크리스천 즉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지,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변형의 과정을 경험한 진정한 크리스천의 반열에는 들지 못한다고 단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숙이라는 한평생 동안 진행되는 신앙 여정에서 오직 소수의 크리스천들만이 그 감동과 감격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늬만의 크리스천들이 과연 어떠한 영적 영역들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바나의 설문결과(Self-Described Christians Dominate America but Wrestle with Four Aspects of Spiritual Depth)를 통해 살펴보자.



진정한 크리스천만이 감동과 감격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영적장애 1: 위임

자신들을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성인들 중 81%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위임하고 있고, 이는 현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라고 밝힌다. 78%의 성인 크리스천들 역시 영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영적 성장과 계발을 위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은 오직 18%에 불과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념상으로는 위임과 헌신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다른 방법들로도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실제로는 위임의 영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온전한 변형을 위한 여정에 장벽이 가로막힌 것과 같다.

영적장애 2: 회개

자신들을 크리스천으로 고백하는 미 성인 중 64%는 자신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와 사죄를 구한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는 극소수의 크리스천들만이 죄의 유혹에서 해방돼 하나님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맡기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의 크리스천만이 삶이 변형되어지는 여정의 종착역, 즉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영역에 이르고 있다. 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

람이 되는 과정,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장애 3: 영적 활동들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문화적 세태를 반영하듯, 크리스천들 역시 무엇이 영적 계발과 성숙을 위한 활동들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39%의 크리스천들은 지난주에 교회 예배에 참가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응답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전형적인 이러한 3가지 활동들을 포함해 보다 더 진지하고 깊은 영적 훈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저하된다. 즉 1% 미만의 크리스천들이 전도나 금식, 고독, 헌신, 영적 묵상 등과 같은 영적 훈련들에

참여하고 있다.

영적장애 4: 교회 공동체

크리스천들은 교회 생활에는 만족을 느끼며 잘 다니고 있다. 그러나 교회공동체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 성장이나 성숙에도 영향을 주는지는 미지수이며 부정적이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공동체에 연관을 갖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드신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의 크리스천들만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교회공동체와 반드시 믿고 있을 정도이다.

(3면으로 계속)



15일 열린 뉴욕교협 선관위 모임. 왼쪽부터 허윤준 교협총무, 장용선 부서기, 김원기 회장, 현영갑 선관위원장 대행(서기), 한재홍 중경회장, 이병홍 중경회장, 유상열 법규위원장.

이종명 회장후보 자격박탈

선관위, 나이·학위 부정확 문제 삼고 투표결과

뉴욕교협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회장후보로 단독 등록한 현 부회장 이종명 목사(아가페강성교회 담임)가 후보에서 탈락했다.

지난 15일 저녁 샘물장로교회(담임 현영갑 목사)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위원장대행 현영갑 목사)는 회장후보 이종명 목사를 △생년기재 부정확 △풀러신학교 목회학박사 부정확을 이유로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부회장에 임후보한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 담임)는 후보등록이 완료됐으며, 감사 2명 노기송 목사(뉴욕에루살렘교회 담임), 김명욱 목사(뉴욕에은교회 담임)의 서류도 접수했다.

선관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한 선관위는 이종명 목사의 임후보 찬반 무기명 투표결과 6대 1로 이종명 목사의 후보탈락을 결정했다.

이종명 목사는 본 나이가 1953년생이나 초등학교 시절 질병으로 4년간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자 1957년생으로 호적을 고쳤다가 목사안수를 받으면서 다시 53년생으로 정정했다. 그러나 미국 입국시 57년생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 올 1월 다시 한국에서 57년생으로 호적을 재수정했다. 이종명 목사는 이러한 과정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교협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력서에 명기된 '풀러신학교 목회학박사(D. Min)'는 입학연도만 기재돼 있어 문제가 된다는 교협의 결정에, 이종명 목사는 후학한 상태이므로 입학연도와 학생번호만 명시했다며 선관위의 권위는 존중하지만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협은 회장후보 공석에 따라 19일, 일간지와 기독교연론 등에 회장후보등록 공고를 내고 23일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은 37년 뉴욕교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뉴욕교계에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0면) (유원정 기자)



2면

스그룹 운영의 달인이 건강한국교회 기본!



3면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안내자



6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5)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16면

인터뷰 김옥룡 선교사(인도)

PGM
www.pgmusa.org

Pgm 선교신학포럼

포럼참석자

오상철박사 (미주이민신학연구소장)
 김성훈선교사 (Consultant of Diaspora Ministries in Wycliffe Europe and UK/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Diaspora, Oxford)
 송상철목사 (아들란타 새한장로교회 담임)
 유영기목사 (L.A.나성복부교회)
 마원석박사 (Executive Director, David Yonggi Cho Research Tutor of Global Christianity,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
 김정환선교사 (SON Ministry 대표)

이은무박사 (KIMNET 사무총장, 전 인도네시아 선교사, 전 GP 국제 대표)
 유승관목사 (한국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 사무총장)
 최재선선교사 (경제학박사, C국 전문인선교사)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정민용목사 (Covenant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
 오정호선교사 (Director, Korean Church Relations of Wycliffe Bible Translators)

선교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선교신학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Here & Now선교
- 디아스포라선교
- 전문인선교
- 교회중심의 선교

Oct.18(화) ~ Oct.19(수). 2011
 필라안디옥교회

1998년 설립된 PGM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많은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PGM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①디아스포라선교 ②평신도전문인선교 ③Here & Now선교 ④교회중심의 선교)에 대한 경쾌한 신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 선교신학자님들과 목사님들을 모시고 PGM선교신학포럼을 가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PGM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pgm@pgmusa.org / 전화 610)397-0484
 *포럼기간동안 PGM정책이사회와 KIMNET정기총회, 필라안디옥교회 17주년 기념성회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시론

웨이트리스(waitress)의 교훈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오고 가는 선교사님이나 손님들 접대, 혹은 모임 때문에 가끔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전에 비해 맛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온 동포가 일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어 가는 곳입니다. 언젠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그 사람 눈에 자기 나라에 선교 오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뒤에 두고 돈 벌러 온 어머니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곳을 가기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맛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부족해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날로 변창하는지라 전에 보지 못하던 아줌마 종업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쁜 유니폼을 입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우리들을 담당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손님을 배정하는 식당 내부의 원칙은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앉아서도 그 분이 오고, 저 쪽에 앉아서도 그 분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냥하게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날 나의 몸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더욱 건강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다시 들릴 일이 있었던 며칠 전에야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 날 그 분에게서는 '섬김'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취급'이나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웨이터(waiter) 혹은 웨이트리스(waitress)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분들이 손님을 섬기기 위해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자리에 앉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곳에서는 웨이트리스로 일하지만 다른 곳에 손님으로 가면 그 분들 역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그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섬김을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장소, 자리, 위치에 따라 섬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에서는 분명 섬겨야 합니다. 그분은 '말'로 손님을 다루려는 인상이 있었으며, 손님보다 위에 있는 자세였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개인을 홍보하거나 어떤 식당을 망하게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식당이지?' '누구지?'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사람을 편하게 만듭니다. 섬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누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섬기는 자세는 낮아져야 하고,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멀리나 조롱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쉬운 쪽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섬김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에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폭 넓게 섬기기 위해서 베푸는 사람보다는 더 섬김 받기 위해 베푸는 의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든지 섬김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찾아오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뿐입니다.

식당에서 나오는데, 때 아닌 찬바람이 몸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웨이터로 오심과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소그룹 운영의 달인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

국제제자훈련원, 영혼 향해 집중된 에너지 쏟아 붓는 달인의 가치 소개

어떤 영역에서든 전문 분야나 일상에서 집중되어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이나 재주를 가진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소위 '달인(達人)'이라 부른다. 따라서 기도에도 달인이 있을 수 있고 찬양에도, 자선이나 구제에도 남보다 다른 달인이 있기 마련이다. 만약 교회공동체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달인의 모습이 있다면 어떨까? 영혼들을 향한 집중된 에너지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사역이 얼마나 깊어질까? 즉 소그룹의 달인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며, 그 집중된 힘과 사역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달인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통달한 사람을 말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일을 환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사실, 이런 사람을 지상에서 찾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의 달인"을 꿈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달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야말로 소그룹 리더로 부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실질적인 헌신'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그 영혼들이 좋아서 달려가는 리더,

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도 주신다.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그룹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을 했는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억지로 했는지 간에 막상 일단 리더로 임명을 받아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점점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바로 영혼들을 섬기고 인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리더 자신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은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소그룹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없다" 부족함 내놓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소그룹 '달인' 만들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때문에 웃고, 그들 때문에 우는 리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이 시대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우리는 이 시대 '소그룹 리더의 달인'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소그룹 리더에 관해서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다. 첫 번째 아이러니는 소그룹 리더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라는 말은 참 은혜롭고 가슴 벅찬 말이다.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소그룹을 맡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십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소그룹을 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순장과 같은 소그룹 리더로 임명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 소그룹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맡게 된 일들을 충분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가 기도도 간구하

지라게 하는 일은 열심을 향한 슬로건을 몇 번 외쳤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만히 있는 자에게 무작정 지혜를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도 깊이 알아야 한다. 구성원들에 대하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도 연구해 봐야 한다. 전달의 방법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한 좋은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날마다 점검하고 다듬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리더들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순간으로 여겨진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영혼들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힘이 드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소그룹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은 리더의 개인적인 느낌의 문제이다. 하나님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건설적인 생각과 느낌이다. 오히려 이런 묵상마저 없는 리더는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거나 아니면 너무나 나태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다.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소그룹 리더의 달인"이 되는 전제조건이 된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분명하다. 핵심적인 방법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그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보다도 자신과 먼저 친밀감을 가진 리더를 더 원하신다. 그 친밀감이 깊게 형성될수록 리더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열정을 품게 된다. 그리고 그 열정을 부지런히 자신의 은사, 곧 소그룹을 인도하는 은사를 날마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도록 만든다. 이런 과정들을 하루하루 반복하다보면 결국 리더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달인"이 되어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소그룹 리더의 달인'이 되는 방법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8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urch Music, Christian Social Work,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규,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남가주지역 KAPC 가을정기노회 일제히 개최

8일 거주노회, 13일 서가주노회·LA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의 남가주지역 가을 정기노회가 지난 8일 거주노회(노회장 양수철 목사)를 시작으로 일제히 개최됐다. 이번 가을정기노회는 회무처리 및 목사안수식 등을 가

졌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교회(담임 이준우 목사)에서 열린 거주노회는 노회

장 양수철 목사가 사회, 이성주 목사가 기도를 이장우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임진태 목사(증경노회장)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마 11:1-11)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그리고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13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린 제17회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이동현 목사)는 이동현 노회장의 사회로 시작, 최창혁 목사의 기도, 이창우 목사가 '동역자'(롬 16:3,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신광철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다.

이날 노회는 목사안수식이 있었으며 김철승, 조재의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또한 이날 노회원들을 대상으로 '종교 통합을 향한 현황, 배리침의 실상과 현실, 그리스도의 신앙대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박준호 기자)



제17회 LA정기노회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KAPC가주노회는 제70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KAPC 서가주노회 제36회 정기회에서 신광철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다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안내자

리더십 저널, 고독의 계절 가을을 맞아 고독의 절대적 의미 소개

가을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지는 계절이다. 특히 크리스천은 자신의 정체성을 길가에 함초롬히 살랑거리며 코스모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성의 길은 외로움으로부터 고독으로 전환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은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외로움을 지켜서 그것을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을보다 더 좋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외로움을 밖에서의 관계인 친구나 부부관계나 아니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즐거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결코 외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못한다.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영적 의미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실존적 빈 공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 재물, 명예, 학벌, 알코올 등을 채우

위기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위기심리'를 겪는다. 남성들은 주로 퇴직과 함께 역할상실을 느끼며, 여성들은 가사권을 며느리에게 넘기고 나서 역할상실의 늪에 빠지기 쉽다. 관계 상실로 오는 노년기 위기는 고독의 골을 깊게 만든다.

따라서 중년기와 노년기 교육관계는 가정생활 못지않게 중요하다. 직업에서 역할상실과 경제적 위축으로 노인의 교육관계는 점점 줄어들어 옛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점차 부부 중심의 삶이 시작된다.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단순히 홀로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했다. 외로움을 '광야'로, 고독을 '동산'으로 묘사했다. 외로움이란 광야를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고독으로 본 것이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예수님도 고독하셨다. 이 땅에서 머리 돌 곳도 없이 사셨다(마8:20).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새벽 오렐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막1:35)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부단히 외딴 곳으로 나가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영적 의미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실존적 빈 공간

하나님 형상 회복 위한 순례의 길 걷는 것으로 극복해야

경우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다시 혼자가 될 때는 이전과 똑같은 외로움에 갇히게 된다.

특히 영적인 삶의 길은 외로움을 바로 고독으로 전환하는 길이다. 그 말은 고독으로 가는 길은 내면의 깊이로 고요하게 들어가 안으로부터의 침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궁극적인 존재 의미를 의미함으로 자신의 존재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더 이상 세상 판단에 맡기지 말고 끊임

려 하지만 허전한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춘기적 증세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여생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며,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욕구라고 풀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기와 노년기에 이런 위기를 맞는다. 중년기에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 '뒀 뒀'을 경험한다. 직장에서도 승진 및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의 한계를 접한다. 노년기에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란

러나 배우자와 친지들의 사망, 자녀들의 출가 등으로 하나 둘 관계가 단절돼 소외감을 갖는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독은 우리를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영적 안내자 역할을 한다. 헨리 나우웬은 "고독은 외로움의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속하지 않는 삶을 뜻한다.

결론으로, 토마스 머턴은 고독은 바로 영적 여정에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고독과의 대면에서 가난해진 심령으로 주님과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상과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적 여정을 위해 고독과 벗하는 시간들이 이 가을에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1면으로 계속)

따라서 조지 바나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인격의 만찬을 벌일 수 있도록 만찬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회 활동들만으로 국한해서 크리스천들은 훈련시켜서는 안된다.

소위 영적 차원에서의 "6가지 핵심 분야"는 예배, 전도, 제자도, 청

지기의식, 봉사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다. 그러나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장 좌표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격 형성에 달려있지, 세상적인 성취나 자랑에 결정되지 않는다. 즉 크리스천들은 자신을 위해서 앞서 말한 6가지 핵심 분야들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 영적 도약을 위한 활동들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훈련들을 좇아

다니기에 분주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오는 삶을 변화시키는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교회 예배나 종교적인 행사들에 참가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거나 닮아가는 것보다 더욱 선호하기에, 소금의 맛을 잃어 버린 크리스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 사회는 성장을 위한 목적이 있는 희생과 고난을 저버렸기에, 진정한 변형을 위한 통로들이 가로막혀 있다. 따라서 고난보다는 편안을 희생보다는 이기주의로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어버렸다.

결국 속이 비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는 분주함과 브랜드 그리고 명성 등 채워두 채워지지 않는 허상들이 사로잡혀 살고 있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고난과

희생을 통해 자기를 온전하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 열매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신앙 형성을 도와 하나님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시적인 후원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공부나 기도 그리고 일상을 나누는 명목상 크리스천들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동체를 만

들어내고 그 안에 소속됐다는 안도감 외에도, 지식과 안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성경 지식이나 신앙 형성에 대한 논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책임감이 개인적으로, 회중적으로 그리고 문화적 변형으로 주어진다던 그 결과는 더욱 귀중한 결과를 낳게 된다. 바로 공동체를 통한 나눔과 섬김이다.

한국의 경기도 안양소재의 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인 **조성근목사**가 LA에서 기도성회를 인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미주 갈멜산 기도성회

강사_ 조성근목사

-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담임
- 나사렛 대학교 겸임교수
- GST대표
- KWMA 운영이사
- 홍신대학교(Th.M/Th.D.cand)
- 미국 ORU(D.Min)

일시 1차 9월 27일(화) ~ 10월 1일(토)
2차 10월 3일(월) ~ 10월 6일(목)
매일 오후 7시 부터 9시
* 주일은 기도성회를 하지 않습니다.

장소 3407 W 6th St. Suite 800
Los Angeles CA 90020(로얄빌딩)
집회문의(213)514-0039 / (213)393-3131

주최 갈멜산금식기도원
www.galmelsan.or.kr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올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 온 1세대는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약과 갱 등 여러 범죄의 유혹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 중에 신앙의 힘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분들도 아이들만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바르게 자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내용이 마음을 번잡하게 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던 ‘백야드 스킵틱스’(Backyard Skeptics)란 무신론자 그룹이 이번에는 ‘성경 페이지 찢기’ 이벤트를 마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들은 지난 5월 웨스트민스터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도발적인 문구의 대형 입간판(빌보드)을 설치하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이는 당신만이 아니다’(Don't believe in God? You are not alone)란 문구의 대형 간판을 설치했음은 물론 오는 29일에는 가든 그로브를 지나는 22번 프리웨이 인근과 오렌지시의 체프만 애비뉴에 같은 내용의 빌보드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기반으로 삼는 성경에서 비도덕적인 내용이 담긴 페이지들을 찢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창설한 브루스 글리슨은 “성경엔 오늘날 우리가 따라 했다간 당장 감옥에 갇힐 만한 가르침이 허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찢어내야 할 대표적 부분으로 신명기의 ‘남편이 부인이 처녀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 이웃들

은 그 여성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처녀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가해자와 결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구절 등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금번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적 구호를 적은 대자보를 붙이지 못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다’ 미국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글귀지만 공립학교 교실에서 이런 구호를 커다랗게 써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캘리포니아 주 남부 지역 언론에 의하면 미국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학교 교실에 기독교 구호를 적은 대자보를 붙이지 못하게 한 학교당국의 처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고등학교 수학교

사인 존슨은 20년 동안 교실에 가로 2m, 세로 60cm 크기의 대자보에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 그리고 ‘창조주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했다’는 글귀를 써 붙여놓고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2007년 웨스트버그고등학교로 전근을 가져 교장은 글귀를 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교장과 학교 당국은 존슨의 글귀가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존슨은 학교 당국의 처사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다른 교사들도 달라 이 라마의 사진이나 흑인 민권운동가 말콤 엑스(X)의 포스터를 붙여 놓지만 학교당국은 문제 삼지 않았으며 ‘종교적 이유’로 탄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존슨이 승소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 판

결이 ‘개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일터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혼동했다면서 만장일치로 학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법원은 더 나아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직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알게 되었지만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체프만 대학이 저회 교회에서 태동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신앙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수한 대학들이 신학교, 교회에서 시작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의 뿌리는 사라지고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남자엄마와 여자아빠” “진화론”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하신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저며 옵니다.

푸/ 른/ 초/ 장

박용덕 목사

(남가주 빛내리교회)



예수님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밭보인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피의 보복을 당한 일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열여덟 사람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망대(watchtower)는 성과 백성들을 지키는 생명줄과 같은 것으로 망대가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망대는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만해도 동성에 교육법인 SB48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어 2002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성의 정당성을 가르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땅의 도덕적 망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영적인 망대가 무너져가고 있고, 나라의 망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파르게 들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 당시 무너진 실로암의 망대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1. 죄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건강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다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

면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눅13:2),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눅13:4) 하시며 그

사람들도 죄가 있지만 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며 죄의 삯은 사망임을 바로 깨달아 죄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혹은 천재지변 등 사람들의 죄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경고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미국의 죄악성을 바라 보면서 마음에 큰 아픔과 슬픔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바이지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이제 점점 타락되어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고 미워하시는 동성결혼 허용법이 확

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가 벌써 7개주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금년 7월에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조차 동성애를 교육시키는 SB48 법안이 확정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악법을 만든 주들에 대해 징계하셨음을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망대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13:3,5)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회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너져가는 미국이라는 망대가 다시 세워지는 길도 전 국민이 회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자녀교육이 다시 사는 길도 그리스도인들을 필두로 모든 주민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란 잘못된 상태를 원상 복구 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격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회개시키러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마4:17).

지금 이 미국 땅과 캘리포니아와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무브먼트(Movement)는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하며, 또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해야 하며, 또한 악법을 막지 못하고 구경만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PCUSA교단은 동성애자의 성직자 안수를 허용하기까지 했는데, 진정 저들이 복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손을

World를 만들어가자는 운동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3. 생명력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마당 밟는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너무나 많은 예배들이 회개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국가도, 경제도 무너집니다.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리려면, 캘리포니아를 살리려면, 자녀들을 동성애교육법으로부터 구해내려면 믿음 안에서 더욱 영적인 일에 투자(Invest)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습니까? 행 2:46-47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드리고, 기도해 힘쓰고, 선한 일에 힘 쓸 때 교회는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브랜드 싸움이 한창입니다. 신문에 보니, 브랜드 1위는 구글이요, 2위는 애플인데 금년 초 9위에서 2위가 되었으며, 한국의 기업인 삼성은 금년 초 18위에서 12위 삼성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려면 우리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브랜드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자가 되고, 헌신과 희생에 앞장서고 불의에 맞서 싸우므로 쓰러져가는 미국이라는 망대를 다시 수축하는 명품인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큼은 절대로 평범(平凡)이 아니라 비범(非凡)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캘리포니아는 SB48법을 저지해야 하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무너져가는 망대를 다시 수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6:8)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망대를 수축하라”

누가복음 13장 1-5절

쓰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다윗된 것은 그도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일에 탁월했다는데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New Spirit Movement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Holy Life, 둘째 Holy Family, 셋째 Holy Nations 운동으로 잘못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성을 회복하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Holy

성경에 보면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채 극심한 가뭄 중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외친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상18:30-31절)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이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부끄럽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가 선포되는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섬리하심 앞에 온 몸을 전율하는 예배가 곳곳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미국은 점점 예배가 폐해지고 있다. 예배가 점점 폐해지니 악한 것들에 의해 미국이 협공을 당하며 마치 사망의 울무 속에 가두어졌듯한

Since 1988

HYM

남가주청년연합회

www.hym.cc



제25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

Here am i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Isaiah 6:8]





일시: 2011년 9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 • 10월 1일(토) 오후 7시

장소: 세리토스 장로교회 Faith Center Chapel (2층)

강사: 첫째날: 김원종 목사 (Harvest 교회 담임)

둘째날: Douglas Kim (HYM 대표)

HYM : T 714.383.5135 (Douglas Kim 대표), 323.459.9832 (전담회 사무) / hym21c@hotmail.com

세리토스장로교회 : T 562.860.5451 / 11841 E. 178th Street Artesia, CA 90701 / www.loveccc.org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는가? 라는 질문은 랑케(Leopold von Ranke)에 의해 시작되어 300여년 동안 계속되어왔다. 랑케는 '실제 일어난 그대로' 과거의 상황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그려보려고 시도하였다. 역사적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당시의 유대교를 재구성하고 고고학적인 자료, 성경 외의 자료들, 그리고 문서 비평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시도해왔다. 역사적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의 결론은 복음서에는 역사적인 진실이 하나도 없다고 믿고 싶어한다.

자유주의학자들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고 역사적 역사를 재구성하려하니 남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주로 윤리적인 가르침에 집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있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초자연이 제거된 '보통 인간'이었다. 즉 '역사적 예수'란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보통 사람, 나사렛예수'를 뜻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못하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다.

최근에 성서고고학회의 일원인 James H. Charlesworth가 역사적 예수 연구의 내용들을 요약한 Historical Jesus: An Essential Guide라는 책을 내놓았다. 성서고고학의 대표적인 잡지인 Biblical Archaeology Review의 편집자인 John Merrill은 역사적 예수의 연구의 요약한 Charlesworth가 지금까지의 방대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요약한 그의 수고를 인정한다. 매릴은 역사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왔다. 예를 들면 1)마리아의 처녀임태사건은 신화이고 2)예수님의 출생의 역사성도 인정할 수 없고 3)예수님의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출생도 두 살 미만의 갓난아이들의 죽음도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출1장의 모세의 출생과 박해를 표절한 것이고 4)동방박사와 별의 이야기도 점성술을 믿는 미신적인 행위이라고 부인한다. 5)헤롯의 유아살해, 이집트로 피신한 것도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하려는 의도였다고 일축한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전과 경기장 등 각종 건축을 행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시작한 헤롯이 유아학살을 자행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적들이나 백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삼촌도, 아내도, 자녀들도 죽인 그의 잔악함을 역사적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성경 중에서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잘라내다 보면

1)1세기의 로마역사학자인 타키루스가 기록한 내용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있다. 또한 네로황제의 화재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나온다. 2) 요세푸스(주후37-100년)는 예수님 당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로서 로마정부를 위하여 일했다. 비록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친구와 성경의 역사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주는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직접 증언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3)탈무스는 주후 52년경에 저술할 동을 했는데 그의 작품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작가가 탈무스의 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혔을 때 지진과 어둠의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4)유대인의 탈무드 중에서 주후70-200년 사이에 기록된 바벨론 탈무드 산헤드린 43A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40일전부터 준비하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것은



역사적 예수님의 역사성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복음이 윤리로 사회적으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바울과 초대교회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또한 형이상학적으로 해석된 예수의 가르침의 본래 모습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사들은 예수 추종자들에 의해서 믿어진 원시적이고 광신적인 전설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목격자라고 믿어왔지만 일부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도 부인한다. 이들은 성경은 너무도 신화적이어서 성경 속에서 아무 것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존재마저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역사는 역사가 전혀 아닌 신화에 불과하다.

여기서 진정한 문제는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적 역사를 찾는가이다. 역사적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제한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비교하고, 예수의 생애가 전설과 과장으로 절절되어있다고 본다. 예수님의 생애 중의 수많은 기사에 의혹과 의심을 가지고 재구성도 시도되

적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수많은 연구들을 정리한 Charlesworth의 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과 행적들은 도리어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유대교의 배경과 잘 들어맞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2성전의 유대인 사회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신앙은 가치있는 발견으로 평가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의 은혜, 용서, 부활에 대한 신앙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었음"을 확인했다.

Charlesworth는 결론에서 우리가 초대 기독교에서 일어났다고 한 사건들은 이제서야 당시의 Jewish Phenomenon 유대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적인 실존과 사역을 옹호한 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발견되는 당시의 유대인 그룹들 즉 열심당, 사두개파, 바리새파, 혹은 에세네파의 가르침과도 일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도덕적 교훈만 남는다. 하지만 도덕적 교훈도 역사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 위주의 교훈이 된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지금까지 세계 교회와 신앙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어왔다.

역사적 예수의 역사성을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 그 자체이다. 1) 성경은 역사성이 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자료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많이 양보를 해서 자유주의자들의 연대를 따르더라도 성경의 연대가 외경과 다른 문서들의 연대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2)성경은 신빙성이 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내용이지만, 외경은 전설이나 부분적으로는 공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허물며 후대의 4세기의 영지주의 문서들은 말할 것도 없다. 3)성경은 사도적 전승이다. 사도적 전승을 담은 성경이 정통성이 있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기독교인이 아닌 제 삼자의 문헌과 자료에도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증거들이 많다.

모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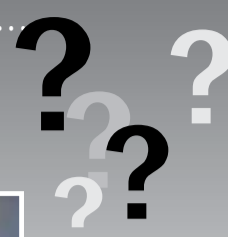
5)1세기의 사람 시리아인 마라바는 1세기 후반에 그의 아들 세라피온에게 쓴 편지에 예수가 언급되어 있다(대영박물관 시리아사본 추가본). 6)사모사타의 루시안은 2세기의 헬라 저술가로서 비기독교인이었던 그는 기독교인에게 냉소적인 비판을 싣고 있다. 7)본디오 빌라도의 칙령이다. 현재 본디오빌라도의 칙령이라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후 150년경에 저스틴이 쓴 글에서 그것이 인용되어있다.

8)젊은 풀리나는 로마의 저술가이며 행정가였다. 그는 주후112년에 트라안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초기기독교인의 예배를 언급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9)예수에 대한 증거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서도 발견된다. 코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사 이븐 마리아' (Isa ibn Maryam)이라고 기록한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뜻이다. 또 코란에서는 예수를 '알 마시'(Al-Masih)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이다.

(15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왜 사람들이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위를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나성에서 김 장로

A: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로 중독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기 어려운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서 10년이 더 된 줄 압니다. 저에게는 80세가 넘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한번은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아버지 교회 영수였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장모님은 지금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부족해서, 뭐 한 것이 있어야지?" "그럼 장모님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야 믿지. 오래 전부터 믿었지" "장모님,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요?"

사람들은 이처럼 구원받는데 "믿음보다 행위"란 요소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싸구려 같고 천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행함이 있어야지 떳떳하지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공짜 같아서 믿기 미더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몸을 움직이고 발버둥쳐서 얻어야 안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2종류가 있습니다.

1)상인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상 맺은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닌 이익을 주 하나님과 성도는 상인관계 아닌 부자관계

고받는 관계입니다. 이 상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서 만불이라는 돈을 깎아주고는 안 갔다고 합니다. 만 불이라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A가 B에게 아무리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잘못이라고 용서를 빌어도 A가 B에게 만 불이라는 손해를 갚지 않는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말과 마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믿음보다도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백 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빚진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2) 부자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수하여 몇 만불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돈 벌어서 만 불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아버지, 이것이 원금이고 이것이 이자입니다"라고 돈만 갖다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손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들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사과드리면 아버지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부자관계는 즉시 회복이 됩니다. 돈을 안 갚아도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다 용서해줍니다. 이것이 부자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돈 즉 행위가 아니라 마음 즉 믿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2)까지 이유가 있는데 사탄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속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어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생각하여 행위로 거래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식물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바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찬양의 초대, 찬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약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위한 예배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다워포인트 중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과 자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식물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일 제공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카드 결제 후 이메일(kcdc@chollian.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발송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 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 예배은행
한국교회정보센터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배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에세이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kcdc.net
이메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티볼리(T'bol)



(T'bol)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오늘 날에는 그 이름을 싫어한다. 주로 필리핀 남부 지역에 위치한 민다나오(Mindanao

거의 9만 3천명에 달하는 티볼리(T'bol or T'bol)족은 필리핀에 있는 부족이다. 과거에 그들은 종종 타가발리(T'ag'bal)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오늘 날에는 그 이름을 싫어한다. 주로 필리핀 남부 지역에 위치한 민다나오(Mindanao

때였다. 티볼리족은 종종 여러 종족 싸움에서 집중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삶의 모습

티볼리족은 대부분 화전농법을 사용하는 농민들이다. 이는 지란 숲을 자르고 그 잔해(부스라기)들을 태운 후, 이로 인해 생긴 삼림 개척지에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마와 카사(카사-고구마와 식물) 등이 재배되긴 하지만 쌀이 주식이다. 식량을 얻기 위해 사냥, 산림 채취, 낚시 등을 하기도 하며 수입을 늘리기 위해 배나 배를 팔거나 다른 산림자물을 근처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티볼리는 6피트 대나무 위에 세운 긴 집(Long-house)에서 산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길이 약50피트, 폭은 30피트에 달한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대나무, 나무, 종려나무 잎 등으로 건축한다. 마을

이나 촌락에 살지 않고 넓게 떨어진 집들에서 생활한다.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은 티볼리족의 민족적 자부심의 주요한 근원이 되며 동시에 티볼리족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나타낸다. 거의 모든 의상은 갈색 바탕에 빨강과 베이지로 밝은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된 티나(T'ina)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여성들은 핀, 귀걸이, 팔찌, 반지로 장식한다. 티볼리족은 보통 터번이나 큰 원형 모자로 머리를 가린다.

결혼은 논의를 거친 후 가족들에 의해 결정되며 몇 달 이상 준비기간을 갖는 화려한 의식이다. 일부일처제가 주로 지켜져 왔으나 부자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많은 부인들을 두기도 한다.

신앙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과 달리 티볼리족은 전통적인 애니미즘 신앙, 즉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 신앙을 따르고 있다. 만약 영혼들을 달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다고 믿고 있다.

티볼리족은 거의 모든 신들을 믿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신이 카다우라 삼바드(Kadaw la Sambad)와 '부론라 모고우(Bulon la Mogoou)이다. 이 두 힘센 신들이 더 약한 신들을 탄생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로운을 주거나 또는 반대로 불운을 가져와 괴롭히고 병을 준다고 믿는다. 티볼리족은 그들의 집이나 들에 큰 나무로 만든 신상들을 두고 신을 달래기 위해 음식이나 술을 바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티볼리족은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필

요한 상태. 즉 의료적인 혜택을 전혀 또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하며 성인의 80%가 문맹이다. 수도물이나 현대적 하수처리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력은 단지 몇몇 마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은 극도로 원시적이다. 벌목과 광업의 출현은 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중요한 위협이 됐다.

그들 중 기독교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볼리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다양한 신들을 신봉하고 있으며 두려움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티볼리족으로 된 신약은 있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과 같은 기독교 관련자들은 아직 없는 상태. 지금도 여러 곳에서 종교적 집단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이 예수를 앞으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2011 미국교회 트렌드는 '멀티사이트 캠퍼스'

한 교회, 여러 개의 예배당. 미국 대형교회와 급성장하는 교회의 트렌드다. 미국 기독교 잡지 '아웃리치매거진'은 미국의 100대 대형교회와 급성장하는 교회를 선정하고 과거보다 더 많은 대형교회들이 '멀티사이트 캠퍼스'를 통해 확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멀티사이트 캠퍼스란 한 교회가 각기 다른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고 사역하는 형태다. 소그룹에 집중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웃리치 매거진은 100대 교회 중 75개 교회가 멀티사이트 캠퍼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교회는 서너 개 이상의 예배당을 각기 다른 지역에 세우고 활동 중이다.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절반 이상도 한 지역 이상에 예배당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교회 중 가장 많은 멀티사이트 캠퍼스를 가진 교회는 일리노이 주 커뮤니티크리스천교회로 14개에 달했다. 그 다음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시코스트교회로 12개의 예배당을 세웠다. 시애틀 마즈힐교회와 새들백교회는 각각 9개다. 100대 교회의 멀티사이트 캠퍼스를 모두 합하면 328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미국 최대 교회로 텍사스 주 휴스턴 소재 레이크우드교회(조엘 오스틴 목사)가 꼽혔다. 이 교회는 출석성도가 4만3500명에 달한다. 2위는 2만7429명인 조지아 주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앤디 스탠리 목사), 3위는 2만4377명의 일리노이 주 윌로크릭커뮤니티교회(빌 하이벨스 목사), 4위는 2만801명의 켄터키 주 사우스이스트크리스천교회(데이브 스톤 목사), 5위는 1만9742명의 캘리포니아 주 새들백교회(릭 워런 목사)다. 100대 교회 성도를 모두 합치면 100만여 명에 달했다. 100대 교회의 평균 출석 성도는 1만509명이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교회(출석성도 수, 백분율 기준)는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아웃리치센터로 2580명, 83%가 증가했다.

'정치적 설교' 하면 면세혜택도 박탈?

미국에서 목회자가 설교 도중 정치적 이슈나 대선

후보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곳은 교회이며, 이는 정부로부터 면세 혜택을 누리는 비영리 기구, 즉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은 "교회에 도덕적 신념이나 신학에 근거해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교회의 면세 혜택을 취소시킬 수 있는가"이며, 이는 곧 설교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가 후원하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목회자의 79%는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7%는 다소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10%는 동의했다.

이 설문 조사 결과는 설교자유주일(Pulpit Freedom Sunday)인 10월 2일을 한 달여 앞두고 발표됐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는 "목회자의 설교권을 자유의 이름 아래 보호하기 위해 이 설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정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1954년 제정된, 면세 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 운동 참여를 금지한 법과 상충된다. 미국 국세청이 감독하는 이 규정에는 면세 기관인 교회 역시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면세 기관이길 포기하거나 혹은 정치적 발언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을 침해하며, 목회자들의 입을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의 고문 에릭 스탠리는 "복음을 중심에 두고 하는 설교와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목회자가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국세청으로부터 면세 박탈의 위협을 받으며 설교에 대해 제재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래 미국 목회자들은 설교자유주일에 참여하며 정치적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설교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해왔다.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펼쳐왔다.

캘리포니아 파산법원 "수정교회 매각하라" 판시

캘리포니아 파산법원이 교회 매각을 어떻게든 막아 보려는 수정교회의 노력과 무관하게 "매각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그간 약 400여명의 채권자들은 수정교회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회수하려 했으나, 교회측은 추수감사절까지 자체 모금으로 이 빚을 갚겠다는 뜻을 밝혀왔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교회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체 빚은 5천만 달러로, 로마카톨릭 오펜지카운티 교구가 5천36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건물을 사겠다고 나섰다. 채프먼대학교, 마이퍼터스하우교회, 하비라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 변호사인 샌더스 씨는 LA타임스에 "가능한 매각이 빨리 진행될길 손꼽아 기다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쉐라 솔라 풀만 목사가 교회를 매각해 빚을 해결하겠다고 선포했다. 수정교회 재산을 일단 매각해 빚을 갚은 후, 본당은 예배를 위해 15년 동안 장기 임대하고, 그 후에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 재산을 구매했을 계획인 것이다.

현재 교회 지도자들은 매각을 막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채권자들은 교회가 계속해서 매각을 방해할 시 지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14일 구매자를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조엘 오스틴 "변명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

조엘 오스틴 목사(미국 레이크우드교회 담임)가 변명복음을 전한다는 비판과 관련, "변명에 관해 가르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나는 내게 주신 이 같은 사명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의 설교와 저술 활동 등에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보수 복음주의 진영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ABC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스틴 목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나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매일의 삶,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경제가 악화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말했다.

오스틴 목사는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내 내시는 분이 아니라 매우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야 한다"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 계시며, 내 삶을 위해 계획을 준비하셨으며,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고 깨닫고 생기를 되찾는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는 이외에도 오스틴 목사가 왜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논쟁들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그는 "내가 다가가려 하는 이들을 분열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동안 복음주의자라고 하면 백인 공화당원이며 이것에 반대하고 저것에 반대하는 그런 식의 굳어진 이미지를 사람들은 떠올려 왔다. 나는 이같은 틀에 의해 인식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도 전에 나를 판단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오스틴 목사가 이끄는 레이크우드교회는 출석교인 수 총 43,500명으로 현재 미국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다. 오스틴 목사는 이 인터뷰에서 레이크우드교회가 매년 8천만 달러 가량을 교인들과 TV 시청자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사역을 위해서 100%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스틴 목사와 그의 아내인 빅토리아 오스틴 목사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오스틴 목사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와 아내가 쓴 책 등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해외 선교단체 접촉시 처벌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종교단체나 탈북자 지원 단체와 접촉한 주민들을 체포해 일부는 처형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당국이 허락하지 않은 지하교회나 선교활동에 관계된 사람은 '파괴분자'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현재 북한주민 15~20만명이 종교적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선교활동이나 외국인과의 접촉을 이유로 체포되어 고문 받았고, 처형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영업

뉴욕의 맛을 즐기세요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연락처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647-6482
뉴욕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9 Tel: 201-346-3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지수 Towel
앞면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판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지수 Towel
대건도, 견도 및 각종 무늬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towel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아닌 사람이든 안경-노, SBMO | 처방을 제시합니다.

58명의 전문목회

1. 영혼의 신앙의 From Sorrow to Faith
2. 신앙의 생활의 From Faith to Revived Life
3. 생활의 영혼의 From Revived Life to Ongoing Faith

시흥(02)2564-3191, Fax: (02)2564-8933
E-mail: sbm01@eznetmail.com

《광견》미주크리스천 다의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미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ly@yahoo.com

종교다원주의 연구 (6)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종교다원주의란 무엇인가(2)

배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구원에 대한 방법을 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거론된다. 첫째는 배타주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고 보는 전통적 교회의 견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복음을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포괄주의이다. 모든 인간은 초월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종교라는 계체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한다. 그 종교는 반드시 기독교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지로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결국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란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하나의 중심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다원주의는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강화시킨다. 그 초월자는 예수 안에 종만하게 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초월자를 제대로 알 수 없

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주관성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 종교다원주의자인 존 히크(John Hick)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종교다원주의자 존 히크

고 있던 세계 전쟁이란 결국 정당화를 앞세운 집단적 광기의 발산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는 전쟁에 참여해서 파괴적인 일을 감행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양심에 근거하여 병역을 반대한 그는 결국 퀘이커 형제단의 의무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종교다원의 현장 경험과 이론

존 히크는 영국 중앙에 위치한 산업 도시였던 버밍햄에서 1967년부터 약 15년간 다양한 배경을 지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곳은 이민자들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즉, 버밍햄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한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말한다. “첫째는 하나의 특별한 종교, 즉 자기 자신의 종교 내에서 알려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다른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시크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님은 궁극적 실재(The Ultimate Real)인 하나님에 대한 인간과 관련된 서로 다른 표현들 즉 서로 다른 ‘얼굴들’이거나 ‘가면들’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위격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세계의 전통적 종교들은 인간 존재의 다양한 문화적 방식 안에서 ‘실재’인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것은 실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정황 가운데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터 실제 중심으로서의 변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윤리적 삶으로 증거 된다.

히크는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에 비하여 결코 도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여 악의 문제에 대하여 관용적이며, 성화는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구원은 각 종교 내에서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해된다. 구원의 행태는 기독교가 지닌 전통적 이해를 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이란 단지 기독교적 용어일 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초월적 영역에 계신 실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독교적 신앙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지 특정한 종교가 유일한 도덕적 우월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히크의 다원주의적 구원관은 ‘보편 구원론’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보편 구원론은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부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다원주의의 구원관은 보편적인 구원이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히크는 기독교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거저으로 간주한다. 세계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이토록 히크의 종교다원주의는 그리스도의 구조적심과 유일성을 기초로 하는 사도적 전통의 기독교를 철저히 부정한다. 사실 그의 구원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언급하는 ‘실재’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생의 길을 섬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다. 그의 철학적 사고의 틀에서 만들어진 종교적 실재일 뿐이다. (다음호에 계속)

종교다원주의자 히크에게 ‘실재’는 추상적 개념에 불과 “성육신은 은유적 표현 불과...신학은 인간 활동” 주장

전쟁이 끝난 후 복학하여 철학을 공부하던 그의 신앙관이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보수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진리를 의심 없이 수용하던 그였다.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 수많은 모순이 담겨져 있고, 답을 찾아볼 수 없는 의문점이 산재하여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젊어서 체험한 회심 경험에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이다. 심지어 그는 미국장로교회 안에서 현대 자유신학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데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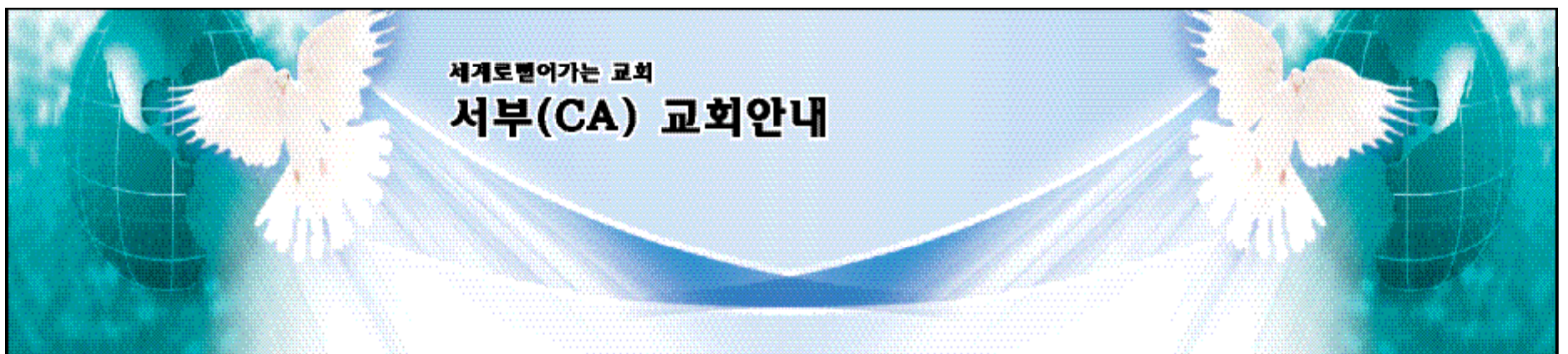
그의 신학적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성경관이

곳이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자신이 모국에서 지킨던 비기독교 전통들, 즉 이슬람교도, 시크교도, 힌두교도, 나아가서는 불교 그룹들 사이의 갈등을 목격하였다.

존 히크는 정치적 불평등, 인종차별, 그리고 잦은 폭력의 피해자였던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에 몰두하였다. 그는 유대인 회당, 이슬람 사원, 시크교 선전, 힌두교 성전, 기독교 예배당을 자주 방문하면서 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깊은 동료애를 느꼈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똑같은 일이 그들 안에서 일

존 히크의 종교다원적 구원관

존 히크의 종교적 실재와 종교적 체험의 구분은 커다란 허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초월적인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칸트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칸트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초월적 영역과 경험할 수 있는 내재적 영역으로 나누고, 외부 세상에 대한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히크의 구원론은 실재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서 공허감을 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구원이란 ‘자기중심으로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후 1:15 (주일) 중점예배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chanokh.org Tel: (714) 228-2540, Fax: (714) 521-6235 8908 Knoll Ave., Brea, CA 92603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전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30(중점)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lsgc.org Tel: (323) 973-4499, Fax: (323) 973-4684 1750 N. Edgewood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 Tel: (213) 413-1500, Fax: (213) 413-1971 1825 Wilshire Blvd., L.A., CA 90027 www.lsgc.org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종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 Tel: (213) 288-7701, Fax: (213) 288-9554 213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찬양예배: 오후 8:30(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638-7323, Fax: (213) 638-1555 1218 S. Fairview Ave., L.A., CA 90019 (Pico/Palms)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원진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8:3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441-2779 / Fax: (213) 441-3767 18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8 Lead4christ.org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sccn.org Tel: (213) 215-8525, Fax: (213) 217-1782 1822 S. Western Ave., L.A., CA 90019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 예배: 오후 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8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 이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825) 995-0004, Fax: (825) 925-8705 7848 Quail Dr., Downey, CA 92624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예배: 오전 8:00 Tel: (310) 719-2244, Fax: (310) 719-2259 152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권영자 목사 "영광의 대문 열어서 복음의 향기를 전합니다" Tel: (213) 212-8990 / Fax: (213) 212-8162 213 Gabriel Drive, Maricopa St., Los Angeles, CA 90027 -기도의 성지: 목장 1024구역-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783-8830, 8200, Fax: (213) 783-8412 1303 E. Colorado St., Fontana, CA 91706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 박성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churchnews.org Tel: (916) 925-2191, Fax: (916) 925-2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289-8277, 9279 518 E.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mjpeacechurch.org Tel: (213) 281-2232, Fax: (213) 281-2525 170 Sibley St., Los Angeles, CA 90004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 박동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825) 995-0004, Fax: (825) 925-8705 5724 Marconi Ave., Compton, CA 92822 Tel: (310) 285-9201, Fax: (310) 285-4282 2284 N.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Web-site: www.arknivalchurch.org	배달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연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825) 995-0004, Fax: (825) 925-8705 18700 Marconi Ave., Compton, CA 92822 www.bc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장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818) 924-8274, Fax: (818) 924-8274 1701 N. La Habra St., La Habra, CA 908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경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951) 839-0177, Fax: (951) 839-0278 1067 E. Redd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samsungchurch.org Tel: (626) 290-6830, Fax: (626) 290-6831 807 S. Lido St., La Habra, CA 90801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재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916) 365-5287, Fax: (916) 365-8882 18214 Reynolds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278-9161(21), Fax: (213) 278-909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강병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714) 285-9201, Fax: (714) 285-4282 2284 N.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병학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Church: (619) 471-5209 / Home: (619) 471-8548 2150 Lido St., San Diego, CA 92111 sngym162@yahoo.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용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30(중점)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818) 249-2371, Fax: (818) 249-0578 www.andyok.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520	업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홍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ironchurch.org Tel: (916) 957-2425 / Fax: (916) 957-2472 28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임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714) 897-5625 / Fax: (714) 897-5697 8600 Soke Ave., Westminster, CA 92683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강성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246-6000 2725 James M Wood Blvd., L.A., CA 90068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중점)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중점)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중점)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중점) 수요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284-4272, Fax: (213) 284-9058 624 S. Normandie St., L.A., CA 90005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gospel.com Tel: (714) 449-2295, Fax: (714) 449-4207 1646 W. Wilshire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최병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10: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ilandchurch.org Tel: (909) 822-2224, Fax: (909) 822-2480 17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Tel: (213) 249-4900, Fax: (213) 249-49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9 www.zb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gpc.org Tel: (909) 822-2224, Fax: (909) 822-2480 1701 S. Grand Ave., San Bernar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 예배: 오후 7:30 수요일 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www.stonestone.org / www.stonestone.com Tel: (916) 924-4000, Fax: (916) 924-4000 1828 E. Nevada Ave., Bakersfield, CA 93307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45-0000 Fax: (323) 645-0048 ■ N.Y.: Tel: (718) 896-4000 Fax: (718) 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의 선배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50.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7) : 세포속의 고속도로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크게 감탄한 것 중에 하나는 넓은 땅과 그 위로 잘 닦여진 고속도로였다. 동부에 살며 관광지를 갈 때면 7-8시간 운전하기도 했지만 서부로 이사 올 때는 거의 3일이 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세포 속에서도 잘 닦여진 길과 특수한 트럭들을 발견하였다.

세포 속의 도로들 중에 잘 연구된 도로가 한 가지 있는데 과학자들이 미세소관(Microtubule)이라 부르는 관이 있다. 보통 사람 세포는 지름이 약 10,000nm인데 지름이 약 25nm인 이 미세소관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 미세소관은 세포의 전체적인 골격구조를 형성하는 뼈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물질들이 운반되는 도로로 사용되기도 한다. 마치 미개밭지에 도로가 생기면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듯이 이 미세소관이 뻗어 나가면 세포의 기관들도 그 길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 세포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 세포의 모양이 되는 것도 있고, 세포 모양도 있고, 신경세포처럼 엄청나게 긴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미세소관과 또 다른 종류의 미세소관들이 그런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미세소관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분열 될 때 복사된 유전정보(DNA)가 아주 단단하게 묶인 염색체들을 잡아 당겨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각 세포로 운반하는 일도 하고 있다. 씨 없는 수박 씨를 만들 때 풀리친(colchicine)이란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데 풀리친은 바로 이 과정에서 염색체들을 끌어당기는 미세소관을 분해해 버리므로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2배로 늘어나도록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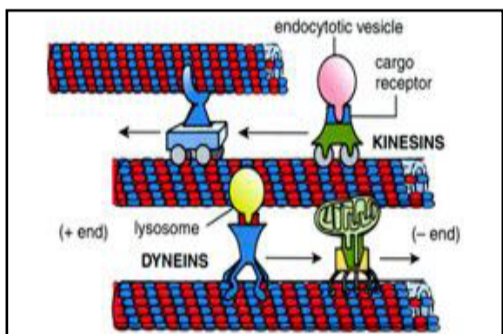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세소관은 길이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시간에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트럭이 지나가게 될 앞 쪽의 미세소관은 길은 길어지는데 지나온 뒤 쪽은 없어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미세소관 자체가 몽땅 없어지기도 한다. 이 역동적인 광경을 시간단축 장면으로 본다면 탄성을 넘

어 경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세포 속의 도로인 미세소관 외벽을 따라 세포의 트럭에 해당하는 운반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생체 트럭들은 물이 관 안쪽에서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관의 외벽을 타고 트럭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체 트럭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카이네신(Kinesin)과 다이네인(Dynein)이란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이 생체 트럭들이 다니는 길인 미세소

전체 세포 골격구조 형성, 물질 운반도로 미세소관은 창조 결과 38억년전 절로 만들어진 세포...진화론적 설명은 비과학 비논리적



미세소관과 생체 트럭들
미세소관 위에서 일방통행하는 생체 트럭 카이네신과 다이네인 그리고 화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관 사람이 고안한 고속도로와 달리 길 중앙에 중앙선이 없고, 금을 그어 주행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생체 트럭들은 사람이 만든 트럭과 달리 일방통행을 한다. 카이네신은 미세소관이 길어지는 바깥 방향으로만 달리고, 반대로 다이네인은 짧아지는 중앙 원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세포 속에도 사람들이 쓰는 택배 시스템처럼 주소가 있는 배송 시스템이 들어 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구입하여 박스에 넣고 그 박스에 주소를 써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기도 한다. 세포 속에도 생체 트럭들에 의해 운반되는 물건들의 목적지가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가 달린 물건들만 분리하고 꾸러미

를 만들어 특정 지역으로 옮겨진다.

예를 들면, 인슐린과 같이 세포 밖으로 내보낼 것 따로, 세포벽에 장착되어 당분이 들어오게 하는 문(glucose transporter)이 각각 따로 포장되어 목적지로 운반된다. 이렇게 목적지 근처에 옮겨진 생체 물품들은 특별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한 순간에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각 꾸러미들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다. 여기에 맞는 열쇠는 최종 목적지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꾸러미들은 다른 곳에 배달되어도 꾸러미가 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세포는 실수 없이 원하는 시각, 원하는 장소에 생체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다.

세포를 조그마한 한 국가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세포 속에는 세포막과 같은 막으로 싸여 있는 여러 개의 도시들이 존재하고 이 도시들 간에 혹은 다른 국가들(세포들)과 물건들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흥내 낼 수 없이 효과적인 도로망과 물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었듯이 피조세계를 관찰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세포 속에서도 미세소관과 물질의 물류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놀랍게 정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런 놀라운 세포의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맨 처음 세포가 38억 년 전에 저절로 만들어져 계속 진화되어 현재의 모든 생명체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진화론적인 설명은 과학적이거나, 증거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강력한 무신론적인 믿음의 표현일 뿐이다. 과학적인 법칙들과 논리를 적용하면, 세포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적인 존재가 만든 것이라곤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진화론은 우연히 진화되어 만들어진 첫 번째 생명체가 6억 년 전에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동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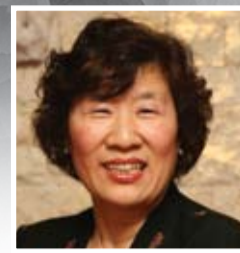
5억 년 전에는 가장 단순한 척추동물인 어류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여 마침내 200만 년 전에는 사람 비슷한 동물로 그리고 20만년-10만 년 전에는 드디어 우리의 직접 조상인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기록한 교과서들이 많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생물의 진화를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지질시대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각 지층들의 나이는 연대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 지층들의 나이는 각 지층 속에 들어 있는 표준화석의 나이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표준화석의 나이도 연대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질시대의 연대들은 진화론에 맞게 연대를 결정하고 보정한 것이다. 결국 성경(특별히 창세기 1장)을 재해석하게 했고, 복음의 기초인 창세기 1-11장까지를 신화로 만들어버린, 수억 년의 지질시대는 가짜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거짓의 아비는 이 수억 년의 지질시대가 사실인 것처럼 수많은 식자와 무식자,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과학으로는 그 놀라운 미세소관과 관련 시스템을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결코 알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을 참고하면 너무나도 쉽게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창조자를 알게 될 때 그분의 형상인 사람이 누구인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뉴저지복음증장교교회)

자존심(pride)과 자존감(self esteem)은 하늘과 땅 차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롬3:10-12).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그 중심을 움직이는 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 닮은 자녀라는 정체감(자존감)은 '나'라는 존재를 굳게 잡아주는 인생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의지하는 축은 바로 자존심(pride)입니다. 곧 내가 왕됨을 지키는 문지가 나만이 소중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자신의 손익에 철저히 민감합니다. 자존심은 또한 자신의 왕된 자리의 위협에 본능적으로 목숨 걸고 사수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나의 부족을 알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가? 내 솔직한 모습은 너무 부끄러워 자신이 없는데, 아무도 내 안에 들어오면 안돼... 내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면 벌을 받을 거야.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녕 죽는 다하셨는데... 나는 죽는 게 무서워, 죽기 싫어...”

끊임없이 빗발치는 변민의 소리입니다. 이미 내 잘못을 지적하고 문초하고 벌을 주시는 무서운 심판자로 마음에서 이미 사랑의 하나님에서 바뀐 관계로 깨쳤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변명하고 빠져 나갈 구멍을 어떻게라도 찾으려 거짓으로 자신을 마취시키는 아담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쥐구멍을 찾는, 쫓기면서도 자기 위신을 찾으려는 책임전가에 급급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서의 자존감이 자신의 입장을 온갖 힘을 동원해 막아내려는 치사한 자존심으로 바뀐 인생의 내면세계는 한 마디로 지옥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감정에 충실해 자극적이고 사나운 자존심을 불쌍히 휘둘리는 인생은 누구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허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롬3:13-18)..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건만 그 마음속을 움직이는 운전자인 축이 왕중왕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은 마음 뒤켠에 처박혀 있고 여전히 알량한 자존심이 삶의 축인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열악한 신자의 모습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는 저희들의 빛나간 모습입니다.

자존심에 불들려 휘둘리며 말씀대로 살아보려 부무림할수록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밤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 오는 것을 보노도다.” 절대 희망에 이르러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 안에 아무런 선이 없음을 통탄하는 절망가운데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롬 7:22-25) 하나님 자녀됨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받은 최고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 바른 정체감을 알게 되어 감격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의 자존감 회복만이 자존심의 죄의 굴레의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은 자녀의 회복된 자존감을 당당히 디디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리기를 영원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김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 (월-토)</p> <p>Tel: (702) 379-7979, Fax: (702) 379-9191 6534 N.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8</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주일 8:30 수요 기도회: 오후 11:30</p> <p>Tel: (704) 841-6291, Fax: (704) 841-1698 2919 McKee Rd., Chandler, NC 2872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7:00</p> <p>Tel: (703) 441-8845, Fax: (703) 441-8943 7783 Kipling St., Arvada, CO 80009</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610) 229-8291, Fax: (610) 229-7777 3290 Morris Rd., Levittown, PA 19348</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목-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수요 예배: 오전 11:30(목-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8:30</p> <p>Tel: (703) 445-9379, Fax: (703) 445-9096 1600 Rockwood Rd., Levittown, PA 19347</p>	<p>맨 앨 교회 담임목사: 김윤재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전 11: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410) 487-9794, Fax: (410) 487-8893 370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백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1: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7:00(월-토)</p> <p>Tel: (617) 252-4478, Fax: (617) 252-4477 750 Main St., Hopedale, MA 01923</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11: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12:30</p> <p>Tel: (410) 327-8444, Fax: (410) 327-8445 11025 Reservoir Ave., Beltsville, MD 21052</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목-토)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7:30</p> <p>Tel: (204) 455-0191 5007 Peachtree Ave., Decatur, GA 30058</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206) 527-0361, Fax: (206) 524-1749 4640 N.E. 169th St., Seattle, WA 98125 www.kyongpang.org</p>	<p>입간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요 예배: 오후 7:3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월-토)</p> <p>Tel: (301) 820-8049 / 사택: (301) 825-3179 850 Roney Rd., Gaithersburg, MD 20878 www.kjms.com</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수요 예배: 오후 7:00</p> <p>Tel: (207) 344-6446, Fax: (207) 344-3152 2320 Green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스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목-토)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7:30</p> <p>Tel: (214) 257-7959-1496, 사택: (214) 257-4363 3416 Wilshire Dr., Plano, TX 7507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수요 예배: 오후 7: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p> <p>Tel: (714) 543-0296, Fax: (714) 543-0377 750 Wilshire Dr., Houston, TX 77048</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p> <p>Tel: (254) 834-6766, (254) 821-4537 408 E. 2nd St., Dallas, TX 7520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11:30(목-토)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703) 344-4427, Fax: (703) 344-4448 4213 Metcalf St., Alexandria, VA 22307</p>	<p>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p> <p>Tel: (804) 200-7900, Fax: (804) 200-7154 10201 Robson Rd., Richmond, VA 23225</p>	<p>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410) 203-0318, Fax: (410) 203-0312 328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252) 385-1989 7481 S. Verde St., Thomas, NC 28686</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11:30(목-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7:00(월-토)</p> <p>Tel: (253) 333-2807, Fax: (253) 333-4217 8702 E. St., Thomas, NC 28686</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252) 539-8975, Fax: (252) 539-8975 8424 E. Yukone Ave., Thomas, NC 28684</p>
<p>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목-토) 수요 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10 주일 4부 예배: 오후 7:00(목-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480) 725-9191, Fax: (480) 567-3997 1150 S. Debon Rd., Chandler, AZ 85286</p>	<p>하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현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603) 842-4738, Fax: (603) 842-6626 306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 style="text-align: center;">하와이지역</p>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808) 726-9011 1835-A Pelele Ave., Honolulu, HI 96816</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808) 739-7004, Cell: (808) 219-4982 3022 8th Ave., Honolulu, HI 96816</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p> <p>Tel: (808) 277-2386/967-1778/642-2522 1367 E. Banahele St., Honolulu, HI 96814</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11:30(목-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p> <p>Tel: (808) 847-4252, Fax: (808) 847-4167 www.honolulu.org 22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동부교계 기사판



미주동부 총신대 동문회 수양회

미주동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전덕영 목사) 수양회가 10월 3일(월)과 4일(화)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철 목사(남서울교회 담임)와 이윤걸 목사(필라델피아 영생교회 담임)이며 회비는 목사회원 20달러(부부동반 30달러). 3일 오후 2시부터 접수를 받으며 개회예배는 오후 5시.
▲문의: (917)710-6264

뉴욕목사회 체육대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용의 목사)가 주최하는 가을체육대회가 10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알리폰드 팍에서 열린다. 배구, 축구, 족구 등 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중식 제공과 함께 상품이 제공된다.
▲문의: (914)393-1450 총무 김영환 목사

뉴욕목사회 목회자세미나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용의 목사)가 10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 장소는 실로암장로교회 (담임 김종덕 목사)
▲문의: (914)393-1450 총무 김영환 목사

뉴욕초대교회 설립30주년기념 임직감사예배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임직감사예배를 드린다. 일시는 10월 2일(주) 오후 5시 뉴욕초대교회 본당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www.nycd-church.com
▲문의: (718)639-3021

퀸즈장로교회 2011 추계 대부흥성회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2011 추계 대부흥성회가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0월 20일(목)부터 23일(주)까지 열린다. 강사는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 담임)로 저녁에는 오후 8시, 새벽 오전 6시, 주일은 오전 8시30분, 오전 10시, 정오,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718)886-4040

승실OB합창단 정기연주회

승실OB합창단(단장 남기풍) 제3회 정기연주회가 10월 8일(토) 오후 7시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미동부 승실 중·고등학교 동문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주회의 수익금은 중증 장애우를 돌보는 뉴욕코코장애아동서비스센터(대표 전선덕 권사)에 전달된다. 지휘 김성우, 이호중, 반주는 김지경 선생이 맡는다.
▲문의: (732)614-8019, (610)202-466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 및 음악회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장재웅 목사) 설립 33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가 10월 23일(주) 오후 5시에 열린다. 강사는 차인홍 교수(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 음대교수) 외 다수. 홈페이지 www.likumc.org.
▲문의: (631)499-1260, 292-2529(저녁)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부흥회에서 강현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교협 회장후보 재등록 공고

23일 오후 5시, 허위서류 제명, 총회전까지 검증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회장 재등록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따르면 후보접수 기간은 19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로 입후보를 원하는 이는 교협 사무실(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로 공고에 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등록 공고 내용은 처음 입후보자 공고와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선관위는 "이력서 및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시 교협에서 제명"하며 "총회일정상 입후보자 서류검증은 총회 전까지 계속 된다"는 추가 내용을 공지했다.

입후보자는 △가입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미납된 회비가 없는 자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뉴욕지역 담임 5년 이상 된 자 △교협의 임직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소명 동반 재심요청 선관위 불허

뉴욕교협 회장후보 탈락 이종명 목사 기자회견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회장후보로 등록하려 했던 이종명 목사(현 부회장, 아가페강성교회 담임)가 후보탈락 통보를 받고(관계기사 1면) 지난 16일 저녁 6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명 목사는 "착잡한 이종명 목사가 나이변경 기본증명서를 보이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 설명하고 있다. 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고 김원기 회장과 의 갈등이 이런 '불법 신상탈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김원기 회장 재임초기부터 주 소록 출판과 신사도 운동, 인터넷 등 이단성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며 선관위 구성부터 공정성이 없고 자신의 총회, 노회, 평통, 성적 증명서 등의 서류를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 받은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사유서도 첨부했으나 자신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일 재심요청과 함께 소명을 요구하자 선관위가 소명을 거절함으로써 이종명 목사의 재심 요청은 철회됐다.

한편 김원기 목사는 19일 본사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공정한 보도를 당부하면서 "(인터넷)댓글을 연속해서 쓰는 이유는 사실의 외전, 오보에는 당연히 답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2010년 교협주소록 계약서를 보내왔으며 신상탈기 관련 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공적으로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관련서류는 △교협 소정 양식의 등록원서 1부 △소속 교단장 추천서 1부 △교협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통 △입후보소견서 1부 △공탁금 1천불 납입증명서 1부 △여권용 사진 1매 △목사안수증명서 복사본과 선관위용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현 목사는 소견서에서 "뉴욕 도성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뻐질 처럼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었다고 믿고 싶다"며, 선관위 심사 기준으로 "지금까지 선관위의 임무가 서류 수발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라도 선관위의 고유 권한인 검증

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에 본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해야 하는 본회의 소정 양식인 이력서와 등록서의 서식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후보가 자필로 기록한 이력서와 등록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종명 목사의 심사기준을 7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이종명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결연아동후원 "Sharing Love" 준비완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모임, 포스터 티켓 배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가 지난 16일 월례모임을 갖고 27일부터 사흘간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콜롬비아 결연아동후원 행사인 "Sharing Love" 준비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회는 김영환 목사 사회로 임병남 목사가 기도한 후 김영환 목사가 이사야 41장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못 이를 일이 없다"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 손을 붙들고 나가 이번 후원행사를 성공리에 치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는 황영진 목사 사회로 회계 보고 전희수 목사, 총무보고 박진하 목사, 홈페이지 및 오보이여 발행 보고 임병남 목사, 한국방문 보고 개인한 장로, 후원행사 경과보고 배영란 권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유원정 기자)



뉴욕어린양교회 부흥회 강사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참 행복"

뉴욕어린양교회 바른 영성 위한 말씀 집회

뉴욕어린양교회(김수태 목사) 바른 영성 위한 말씀 집회가 지난 16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강사는 이종호 목사(평화교회 담임)와 김연희 목사(신생중앙교회 담임)가 초청됐다. 두 강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을 강조하며 말씀위에서 믿음의 참 행복임을 역설했다. 한편 어린양교회는 니카라과 마나구아에 현지 사역자인 박성도 선교사의 도움으로 1,400명을 수용하

는 선교센터 헌당식을 가졌으며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중남미 현지 10개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김수태 목사와 이번 부흥회 강사인 이종호 목사와 김연희 목사가 맡았으며 중남미 목회자들에게 바른 영성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유원정 기자)

자세한 문의: (516)662-9322, (917)715-1178

(유원정 기자)

이날 행사 포스터와 티켓을 배부하고 광고지원과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대해 결의했다.

한편 김인한 장로는 한국방문 보고에서 한국기아대책에서 기금모금으로 사용하는 커피를 동 기구에 후원키로 했으며 다음 후원행사 때에는 연예인 홍보대사 파견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또 뉴욕의 찰스 랭글 하원의원을 홍보대사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주최하는 콜롬비아 결연아동후원 행사인 '이성순 화백과 함께 하는 종합예술쇼'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며 29일은 저녁 7시부터 음악회를 함께 갖는다. 티켓은 20달러.

자세한 문의: (516)662-9322, (917)715-1178

(유원정 기자)

뉴욕어린양교회(김수태 목사) 바른 영성 위한 말씀 집회가 지난 16일부터 3일간 개최됐다. 강사는 이종호 목사(평화교회 담임)와 김연희 목사(신생중앙교회 담임)가 초청됐다.

두 강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행복을 강조하며 말씀위에서 믿음의 참 행복임을 역설했다. 한편 어린양교회는 니카라과 마나구아에 현지 사역자인 박성도 선교사의 도움으로 1,400명을 수용하

(유원정 기자)

는 선교센터 헌당식을 가졌으며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중남미 현지 10개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는 김수태 목사와 이번 부흥회 강사인 이종호 목사와 김연희 목사가 맡았으며 중남미 목회자들에게 바른 영성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유원정 기자)

자세한 문의: (516)662-9322, (917)715-1178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38회기 회장 입후보 재등록 공고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38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에 입후보 하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 등록기일 : 2011년 9월 19일 ~ 9월 23일 (금) 오후 5시까지
- ◆ 등록장소 :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 사무실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718)358-0074, Fax (718)321-0105

★제11조(후보자자격)

- ◎ 회장, 목사부회장: 1. 본회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회비제납이 없는 자 2. 목사안수 10년 이상 된 자 3. 뉴욕지역 담임목사 5년 이상 된 자 4. 본회, 임직원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5.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평신도 부회장: 이사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제로 함.
- ◎ 감사 후보는 이력서만 제출

★제12조(입후보등록구비서류):

- 1. 등록원서 1부(교협소정양식)
 - 2. 소속 교단장 추천서 1부
 - 3. 교협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 4. 증경회장 2인 이상 추천서
 - 5. 이력서 1통(사전부적)
 - 6. 입후보소견서 1부
 - 7. 공탁금 \$1,000 납입증명서 1부
 - 8. 여권용 사진1매
 - 9. 목사안수증명서(복사본)
- 선관위용: ① 운전면허증 사본 ② 여권 사본
*이력서 및 모든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 위조 시 본회에서 제명 한다.
*총회 일정상 후보 서류 검증은 총회전까지 계속 됩니다.

★제13조(소견발표):

입후보자는 선거직전총회에서 3분 이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1회 공개토론회예정

★제14조(선거운동):

본 선거관리 위원회가 심사하는 공고 및 홍보행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Flushing, NY 11354/
Tel.(718)358-0074,4428/Fax.(718)321-0105
E-mail:nyckcg@gmail.com / www.nyckcg.org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운준 목사 서기 및 선거관리위원장 대형 현영갑 목사

프로포지션8 통과무시...가정 보호해야

남가주 교협 목사회, SB48 반대청원 설명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15일(목) JJ그랜드호텔에서 'SB48 법안 반대 청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민종기 목사는 "SB48에 대한 교계의 반대는 지난번 통과된 프로포지션 8을 무시한 주정부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취하는 것으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결코 동성애자의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SB48법안은 가주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교과서에 동성애 부부도 일반적인 가정의 하나라고 명시하는 등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다. 주세운교회의 담임인 박성규 목사는 "지난 5일간 마켓 등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캠페인을 벌여 2000여



남가주교협 민종기 회장이 SB48법안 반대 청원을 위한 설명회에서 반대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명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반대 민심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각 교회에 캠페인 참여를 부탁했다. SB48 반대를 위한 청원서는 10명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카드와 2명이 서명할 수 있는 카드 두 종류가 있다. 같은 카드에 동일한 카운티 거주자가 서명을 해야 하며 유권자 등록이 된 자들에 한해 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인은 시민권 받을 때

했던 사인을 해야 하며 시민권 취득



피종진 목사 초청 남가주 한인 선교대회에서 피종진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이날 참석한 자녀들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내 영으로 부어주리라”

남가주목사회, 피종진 목사초청 한인선교대회 개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풍성한교회에서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초청, 한인선교대회를 개최했다. 박효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선교대회 둘째 날 집회는 추창호 목사 기도, 김종대 목사 성경봉독, 한글기도 고주모 목사, 광고 정요한 목사, 축도 김재연 목사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 피종진 목사는 '내 영으로 부어주리라'(골2:28-32) 제 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기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루어주신다"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

할 때 다른 사인을 할 경우 무효 처리 된다.

이달 말까지 최소 6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30일까지 65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대청원이 될 수 없다. 교계에 따르면 26일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야 주정부에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히며 워낙 까다로운 조항 때문에 청원서가 무효 처리되는 것을 감안하여 75만 명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계는 제 38회 LA 한인축제 기간 축제장소인 서울국제공원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323)735-3000, (323)404-314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인랜드교회 제4대 담임목사 위임 및 시무장로 임직예배에서 박신철 담임목사가 위임사를 하고 있다

“회막문 떠나지 않는 모세처럼”

인랜드교회 제4대 박신철 담임목사 및 시무장로 임직

인랜드교회 제4대 담임목사 위임 및 시무장로 임직예배가 18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신철 목사는 위임사에서 "정병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여주셨다. 모세는 40년 동안 200만 이상의 성도를 대상으로 목회했다. 모세를 보면서 양떼를 섬기기 위해 모세가 한 것은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기에 힘썼다는 말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 모세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온유한 리더, 겸손할 수 있는 리더 되길 기도해 달라. 인랜드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직된 시무장로는 백상철, 이종의 장로이며, 한성운 목사가 박신철 목사와 임직된 장로 그리고 인랜드교회 교인들을 위해 권면을 전하고 정희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김상덕목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주여 말씀을 열어 보게 하소서”

김상덕 목사, '영적은혜의 실상' 세미나 개최

PCA 한인 서남노회 노회장 한성운 목사(서남노회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신홍식 장로의 대표기도, 인랜드 연합성가대의 특별찬양, 정희주 목사(서남노회 중경노회장)가 '교회일꾼'(골1:24-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담임 목사 위임식, 장로 위임식이 이어졌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담임)의 '영적 은혜의 실상'을 위한 세미나가 '주여 말씀을 열어 보게 하소서'란 주제 아래 1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올림피아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개최됐다.

김상덕 목사는 로마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걸은 거룩한 모양

이나 마음은 그대로이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은 죄의 종으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죄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득 채워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마음에 마귀는 사방의 생각을 던진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본 세미나는 복음장로교회 전도부에서 적극 후원하는 세미나로 현재 6회째 진행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메시아 대연주회 단원모집
남가주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는 대형교회 성가대단이 가능했던 이 곡을 작은 교회 성가대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메시아 대연주회'를 기획하고 단원모집에 나섰다. 이 연주회의 지휘는 송규식 목사가 맡으며 본 연주회는 LA지역 11월 26일(토), OC 지역 12월 4일(주일)로 예정됐다. 참가대상은 메시아 연주경험자 및 희망자로 특히 작은교회 성가대원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연습은 매주 화, 목요일 LA와 OC 지역에서 각각 진행된다.
▲문의: (714)699-0210

크리스찬문협 월례회 및 특강
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운 목사)가 9월 월례회 및 특강시간을 갖는다. 26일(월) 오후 6시30분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월례회에는 박요한 목사(소설가)를 초청 아름다운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문의: (213)249-0771

남가주한인장로회 제5회 사랑의 찬양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하기인 장로)는 '제5회 사랑의 찬양제'를 25일(일) 오후 5시30분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글로리아한인합창단, 남가주장로성가대, 레위남성성가대, 세계비전교회 여성성가대, 미주여성성가대, 알렐루아싱어즈 등과 나성성결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유니온교회, 인랜드교회의 성가대들이 출연한다. ▲문의: (213)321-1841



또감사선교 교회에서 열린 2011 또감사 가을워십콘서트에서 송정미 성가사가 찬양하고 있다

송정미와 함께 2011 또감사 가을워십콘서트

“은혜, 회복 그리고 소망” 주제로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는 송정미 성가사와 함께하는 2011 또감사 가을워십 콘서트를 '은혜, 회복 그리고 소망'이라는 주제로 16일 저녁 7시30분에 개최했다.

이날 송정미 성가사는 '내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You needed me', 영화 토이스토리2의 OST '사랑을 받을 땐' 등을 부르며 그동안의 찬양사역 여정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눴다. 특별히 이날 '오직 주만이'를 작곡한 안선 사모가 피아노 연주자로 특별 초청돼 콘서트를 더욱 빛냈다.

송정미 성가사는 "지난 6월 이스라엘 선교훈련 때 엔게디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당시 12시간동안 길을 헤매면서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됐다. 또한 지난여름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우편산 산사태로 무너지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이 안전한 곳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세상이 힘든 상황을 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희망가'와 '축복송'을 앙코르 곡으로 다함께 불렀으며 최경욱 목사의 인도로 이날 모인 청중들이 송정미 성가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갖춘 후 최경욱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중언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l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종류(표지)	3.5cm × 4.5cm	\$600.00	
유 료 관 고 안 내	전면칼라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7.7cm × 11.7cm	\$350.00	
		15.5 × 2.8cm	\$250.00	
	7.7cm × 5.8cm			
	물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속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시택주소	_____	
	⑥ 시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인/터/뷰 김옥룡 선교사(인도)

“동역자들의 회복과 인도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옥룡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했다. 1978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1998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백하는 김 선교사의 신앙여정을 들어본다.



김옥룡 제자훈련반 수료식(뒷줄 좌측 두번째가 김선교사)

김 선교사의 사역지는 인도 첼나이라는 도시이다. 인도 남부는 교회가 많고 북부 쪽엔 미전도 종족이 많다. 첼나이는 남부에 속해 있는 곳으로 인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 1,200백만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곳은 4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7월까지의 화씨115도까지 올라간다. 처음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습관처럼 넥타이를 맸지만 얼마 못가 더위에 지쳐 넥타이를 훌훌 풀어내고 인도가 되었다고 한다.

동남아시아가 한류열풍에 쌓여 있는 것처럼 인도 역시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이나 현대, 롯데제과 등이 들어오면서 하청업이 늘어 지금은 한인기업이 160여 개 정도에 달한다. 더구나 한국제품들이 고급제품이고 그곳에서는 부의 상징이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

인도에 도착하여 6개월 쯤 후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웬지 시작이 되지 않았다. 김 선교사는 제자훈련 대신 ICGM(India Church Growth Missions)에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했다. 이후 다른 선교기관들과 협력하여 목회자세미나, 빌리지 전도 집회, 부흥집회, 전도 집회 등을 인도했다. 그러다가

나 했지만 번번이 진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 웬지 자꾸 어그러지지만 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자꾸만 들려주셨다.

그러다가 2004년 미국에 방문할 기회가 주어져 병원엘 갔는데 의사는 뜻밖의 말을 전해주었다. “전번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것 같다”는 것. 검진을 한 의사는

내와 함께 부산 여행을 계획했다. 사모도 기쁘게 응했기에 김 선교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던 뒤 4-5일이 지났을까? 아내의 배에 갑자기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그나마 해오던 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결국 2주정도 지난 어느 날 아내는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 일로 인해 두 아들의 상처가 너무 컸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는 “이 일로 인해 큰 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좀 빠져 있다”고 말하며 어설픔게 아픈 미소를 머금는다.

짧은 시간 자신의 사역을 토로해 내는 김 선교사의 이야기를 숨죽이며 경청했다.

아직 가족에게 남아 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아 때때로 고통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는 기도로 말씀으로 한 걸음씩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이제 다시 사역지를 향해 발을 옮기는 김 선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뿐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아픔만이 아닌 인도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풀어 놓았다.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제리 형제에게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늘 씩씩하는 일로 사역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방해가 있고 메삭 목사 역시 그가 공부하기 위해 웅자한 빛으로 인해 은행에서 집을 차압 하자 할머니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메삭 목사는 약 6개월 이상 사역에서 손을 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인도에서 가장 많이 돕고 있는 집사님도 계속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진단을 받고, 이런 저런 검사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 회복과 인도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기도 쉬지 말아 달아주시시오.”

김옥룡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1983년도에 말씀을 읽는 중,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1984년 봄, 인도에서 ICGM(인도 성장교회 선교회)을 조직한 그나니아 목사의 교회 방문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며 88년 신학교에 입학해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리노이 주 남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94년 목사안수를 받고 미네소타 주 세인트 클라우드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했다. 1998년 6월 타코마중앙장로교회(현재 이형석 목사 담임) 선교목사로 부임한 후 그해 10월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시드 선교회 소속 선교사이다. 이메일: mtioky@hotmail.com (이성자 기자)

선교 사역중 주님품에 안긴 고 김명숙 선교사 아내떠난 아픔 딛고 다시 인도로 제자훈련 계속

하는 20여 한인 선교사 가정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인도에서의 선교사역에 대해 묻자,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김 선교사는 귀띔한다.

옛날에는 마을로 들어가 문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통상적인 선교방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5년여 전부터는 형태가 조금씩 변했다. 선교사들이 직접 나서서 노방전도의 형식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과 달란트의 소모일수도 있고, 그러한 노방전도는 현지인들을 가르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실천할 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몫은 현지인들에게 돌리고 선교사들은 현지인 지도자들의 재교육이나 훈련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한다. 목회자들이 먼저 제자훈련을 받아야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도 목회자 제자훈련에 남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다. 김 선교사가 제자훈련의 뜻을 둔 것은

2001년 11월에는 첼라파티에 교회를 개척하고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기도 했다.

이렇듯 교회를 세우고 전도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과 역사를 보여 주셨기에 너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의가 왔다.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관리할 사람이 없었다. 그들을 관리할 교회도 인력도 없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그때 다시금 생각 난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김 선교사가 선교 초부터 그토록 꿈꾸던 제자훈련 사역은 제 3기 사역이 시작된 2008년부터야 서서히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게 하셨다.

진한 카레 향을 떠오르게 하는 인도에서 그들의 향과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의 의상을 즐겨 입으며 그들과 동화되어 인도인이 되어가던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온 것은 2003년, 사모에게 유방암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인도에서 치료를 해보려고 병원예약을 7번이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할렐루야!

이후 건강에 대한 염려를 모른 채 사역에 임했다. 교회 사역과 함께 2006년에는 그곳 신부가 하던 학교를 인수했다. 신부 개인이 운영해오던 것인데 신부가 몸이 약해져 더 이어갈 수가 없게 되자 김 선교사와 연결이 됐고 자연스럽게 인수하게 됐다. 현재 그 학교는 1학년에서 8학년까지 약 2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작년 4월,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잠을 자던 아내가 갑자기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전전하며 얻는 진단결과와 간담이었다. 그것도 이미 너무 자라 버려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진단이었다.

결국 한국 샘병원으로 들어가 재검진을 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혈관까지 전위됐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했다. 수술을 포기하고 온열치료를 2주 받아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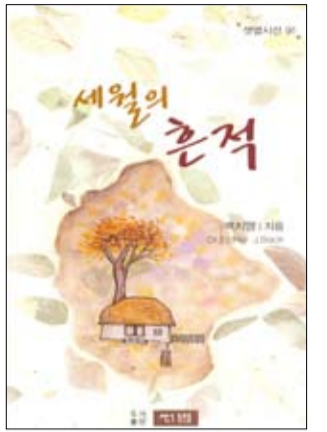
김 선교사는 그동안 치료로 수고한 아

새책 소개

시집 “세월의 흔적”

저자 백지영 목사

‘향품을 간직한 채/ 당신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당신의 육신의 장막은 없었습니다/ 당신을 단념했을 때 다시 사심은/ 당신에 대한 온전한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찢겨진 육신의 상처/ 당신으로 인해 치유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내 영혼은/ 더욱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위한 시... 영혼 살찌운다

로문대학 총장의 두 번째 시집 ‘세월의 흔적’에 실린 시의 한 부분이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적었다.

본 시집은 제 1부 고향집, 제 2부 가을의 노래, 제 3부 삶의 기도로 구분되어 1부 고향집에는 ‘고향집’, ‘봉선화’, ‘작별’, ‘사막의 땅’을 비롯한 32개의 시가 수록됐고 2부 가을의 노래에는 가을의 향내를 물씬 풍기는 15편의 시를 게재했다. 또한 3부 삶의 기도는 ‘새해기도’, ‘새해 아침’, ‘은혜’, ‘사랑의 빛’, ‘메시지’, ‘막달라 마리아’, ‘섬김의 자세’ 등 22편의 신앙고백이 삽입됐다.

저자 백지영 목사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위한 시를 쓰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영혼을 살찌우는 좋은 시를 쓰고 싶어 오늘도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머리말을 통해 고백하며 본 시집에 수록된 ‘고향 집’은 육신의 고향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해 믿는 자들의 고향인 천국의 소망을 그리기도 했다.

또한 본 시집에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이며 기독교타임스 사장인 김철수 박사의 축하의 말이 수록돼 있다. 저자 연락처는 (213)381-7755로 하면 된다. 책 구입처는 각 기독교서점에서 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제 3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2011 3rd Symposium of Immigration Theology

주제: 복합문화속의 목회 리더쉽

- 일 시: 2011년 10월 10일(월 / 6:00 pm~9:00 pm) ~ 11일(화 / 9:00 am~9:00 pm)
- 장 소: **총현선교교회** (민중기 목사 사무) 전화: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http://www.choonghyun.org/web/info05.php (교회약도)
- 대 상: 이민목회자 및 사모, 선교사,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 주 제: 복합문화속의 목회 리더쉽
- 등 록 비: 1인당 50불(개교회에는 디스카운트가 있으니 주보를 가져오시기 바람)
(Pay to the order of: The kait)
- 공동주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박사)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

- 등 록 처: 양경선 사무국장(213-255-1725)
박세현 총무(323-404-3147)
이민신학연구소(714-388-2107)
- 웹 등 록: Thekait.com(이민신학연구소, 714-388-2107),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JJ그랜드 호텔(213-383-3000, 코리야타운)로
직접 예약 하시기 바람
공항 및 숙소픽업을 해드립니다.